



<http://www.gjiwill.or.kr/>

흥사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입니다.

I Will센터는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인터넷과다사용 및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I Will 센터 2015년 11월 뉴스레터

광진 I Will 센터 소식 / 11월 활동



1. 광진중 CSI(Control Smartphone Internet) 프로그램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20회에 걸쳐 광진중학교 예방교육 프로그램 C.S.I.가 진행되었다. 11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총 15회기의 프로그램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사이버 범죄’, ‘사이버 불링’, 그리고 조출한 축하파티와 함께 사후검사와 소감문 작성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각 반 별로 한 해 동안의 활동 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 담장넘어 꿈틀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1월 6일, 13일, 20일(금) 오전 09시~12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담장 넘어 꿈틀이’가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촬영된 영상 소스를 편집하여 1차 가편집본을 완성하였으며, 추가될 부분과 새로운 편집 포인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편집 작업을 함께 진행하였다. 제작된 영상은 12월 12일(토) 꿈틀이 축제에서 진행될 시사회를 통하여 상영될 예정이다.



3. 전환기 청소년(중3, 고3) 대상 프로그램 ‘비상하라! 꿈틀이!’

11월 23일(월), 25일(수), 26일(목) 3일간 건대부고, 광양고, 광진중에서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비상하라! 꿈틀이!’가 진행되었다. SMART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주제로 한 예방교육과 함께 ‘심포스마트폰 보관함 만들기’, ‘찰칵! 포토제닉 마우스패드 만들기’ 등의 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는 전환기 청소년들의 자기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건전 사용 의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가족집단상담 푸드테라피

11월 28일(토) 오후 2시~6시까지 가족집단상담 푸드테라피가 진행되었다. 2시~4시까지는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4시~6시까지는 대학생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총 1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음식재료를 매개로 가족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음식이 가져다주는 감각적 즐거움과 심리적 위로를 통해 가족관계 긍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5. 센터외 청소년 집단상담

11월 한 달 동안 사회성 향상을 주제로 동의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새빛지역아동센터에서 각 4회기씩 집단상담이 진행되었다. 참여 아이들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성 기술 습득 및 대안활동 체험을 통해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센터 내 청소년 집단상담

11월 3일(화)~24일(화), 11월 4일(수)~25일(수)까지 센터에서 특별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집단상담이 진행되었다. 총 6회기로 진행될 본 프로그램은 또래관계속의 갈등 해결 및 사회성 기술 습득을 목표로 다양한 미술·놀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7. 부모 집단상담

11월 4일(수)~25일(수) 10시 30분~12시 30분까지 광진 I Will센터 상담실에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주제로 부모 집단상담이 진행되었다. 총 6회기 중 5회기를 진행한 부모 집단상담에서는 연령대별 자녀의 발달 과업 및 부모의 적절한 태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방식을 점검하고 자녀의 눈높이로 자녀와 관계맺는 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8. 청소년 서포터즈

11월 27일(금) 12시 30분~16시까지 북촌 '어둠의 대화' 전용 체험관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건전 사용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날은 대안활동으로 전시관람 시간을 가졌으며 어두운 곳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받으며 다른 관점에서 일상을 체험하는 활동을 경험하였다.



9. 서포터즈 보고대회

11월 24일(금) 14시~16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5년도 서울시 I Will 센터 인터넷·스마트폰 건전 사용을 위한 청소년 서포터즈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은 서울시 6개 I Will 센터의 우수활동 단원과 교사, 학교를 시상하고 한 해 활동을 돌아보았다. 본 센터에서는 광진중학교 서포터즈 단원이 서울시 시장상을 수상하였다.



9. 외래상담원&동반자&특별치료 사례회의

11월 3일(화)에 외래상담원, 동반자 사례회의가 진행되었고, 11월 10일에는 특별치료 사례회의, 11월 17일에 동반자 사례회의가 진행되었다. 사례진행현황에 대해 나누고 공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3일(화) 사례회의에서는 개인상담 진행 중 필요에 따라 특별치료를 연계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0. 특별치료 사례회의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동안 해봄 강의실에서 특별치료 상담사례토의모임이 진행되었다. 티움심리상담연구소 홍수현 소장을 모시고, 놀이치료사 2명의 치료 사례를 지도받는 시간으로 진행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개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의할 수 있었다.



11. 멘토 사례회의

11월 19일(목) 광진 아이윌센터 멘토링 사업 진행에 따른 11월 멘토 사례회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센터내 4명의 멘티 학생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멘토-멘티 만남에서 멘토들이 갖게 되는 부담감, 멘티에게 무조건 잘해주어야 한다는 멘토들이 갖는 환상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 또래상담자

11월 7일, 21일(토) 또래상담자 5, 6회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래상담자로서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해보고 또래상담자들이 보드게임도 함께하면서 또래에게 다가가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6회차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에게 상담을 실시해보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점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등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3. 대상별(청소년) 예방교육

11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초등 62학급(1,610명), 중고등 8개교(5,278명)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초등은 6회기 학급 집단 프로그램, 중·고등은 방송 및 학년 전체 집단 강의 형태의 특강교육으로 스마트폰·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14. 유·아동 예방교육

11월 3일(화)부터 19일(목)까지 유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동화 속 스마트나라'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동화로 알아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다사용 증상,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O·X퀴즈와 인터넷 지킴이 다짐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관내 유치원 5개 기관 총 330명의 유아동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15. 학부모정보통신윤리교육

11월 10일(화)부터 25(수)까지 서울화양초등학교 외 2개교 학부모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 미디어 사용 지도 부모교육이 진행되었다.

“인터넷(스마트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하기” 주제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과 뇌의 상관관계, 과다사용의 영향 및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6. 자문위원회

1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다.

학교 교장 및 교감, 교육지원청 장학사, 스쿨폴리스, 상담학 교수, 중독의학 전문의 등 관계각층의 전문가 8명이 모여 센터의 역할 및 방향성과 지역사회 내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센터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함께 역할 및 포지셔닝에 관한 건설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17. 2015년도 사업 평가회의

11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센터의 2015년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회의가 진행되었다. 각 담당자별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 발언 후, 함께 사업을 진행한 동료 및 관리자의 평가와 내년도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평가회의에서 도출된 결론들을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더욱 나은 모습의 광진 I Will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진 I Will 센터 12월 예정 활동

- 청소년 집단상담(초등 저학년/고학년)
- 부모 집단상담
- 연합 보고대회
- 담장넘어 함께 꿈틀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대상별 예방교육(유□아동/초등/중고등)
- 예방강사 월례회 및 하반기 평가회의
- 학부모정보통신윤리교육
- 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찾아가는 상담, 특별치료(놀이/미술)
- 찾아가는 상담 사례토의모임
- 외래상담원, 찾아가는 동반자, 특별치료 사례회의
- 꿈틀이축제
- 종무식